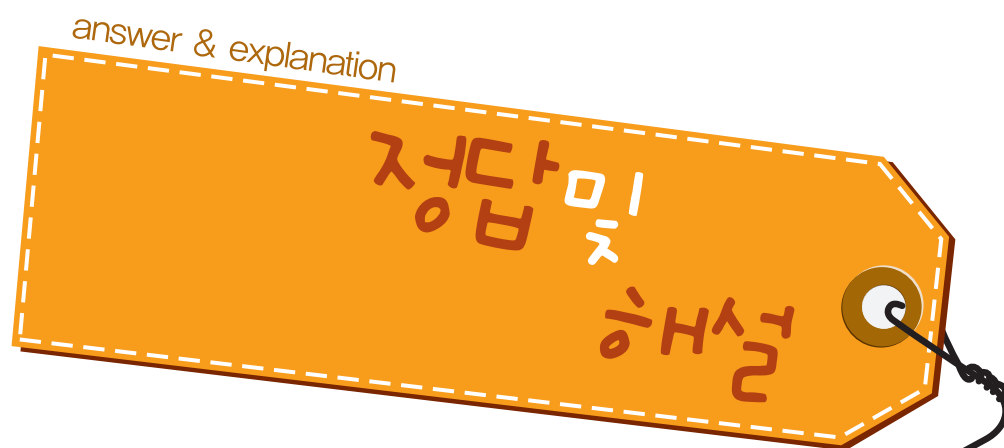




국어·생활 국어

1-2

01 강 시(2)

핵심 다지기

p.006

- 1 시 2 운율, 정서 3 어조 4 함축적
5 3음절(글자)

성취기준 확인문제

p.007

- 01-1 ④ 01-2 까마귀, 강물 01-3 ⑤ 02-1 ②
02-2 ③

- 01-1 이별의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다.
01-2 '까마귀'와 '강물'은 이별의 안타까움과 슬픔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별을 재촉하는 외부적 상황에 해당한다.
01-3 같은 구조의 반복은 찾아볼 수 없다.
02-1 이 시는 별을 통해 인간 관계의 인연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02-2 시어는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실력 다지기

p.008~011

- 1 ⑤ 2 ③ 3 ① 4 우리의 몸과 맘도 어느덧 푸른 풀잎이 돼 버리거든요. 5 ⑤ 6 ④ 7 ①
8 (예시답) 고아원, 양로원, 달동네, 꽃동네 등 9 ②
10 ㉠ 진눈깨비 ㉡ 함박눈, 편지, 새살 11 ④
12 바람, 눈 13 ② 14 ④ 15 ③ 16 ②
17 민요는 특정 작가가 지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므로 노랫말의 내용이나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18 ④ 19 ④
20 ④ 21 일성호가(一聲胡茄) 22 ④
23 ⑤ 24 ②

- 1 이 시는 풀잎, 휘파람, 소나기, 바람 등의 시어를 통해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2 '풀잎'이라는 같은 낱말의 반복과 '요'의 반복, 각 행의 끝에 '요'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3 ㉠은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4 시의 화자인 '우리'와 자연인 '풀잎'이 하나가 되는 것을 표현한 시구를 찾는다.

- 5 두 시는 울림소리(ㄴ, ㄹ, ㅁ, ㅇ)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맑고 밝은 느낌을 준다.
6 '풀잎'은 시의 제재로서 반복해서 사용되며, 밝고 싱그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대화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7 이 시의 4행을 통해 시적 화자의 현실 인식을 알 수 있다.
8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곳, 사람의 따뜻한 정이 그리는 곳, 희망이 필요한 곳 등이다.
9 '가장 낮은 곳'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의미한다.
10 ㉠은 부정적 존재, ㉡는 긍정적 존재로 서로 대조된다.
11 이 시에서 다른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2 '바람'과 '눈'은 매화가 꽃을 피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희망을 빼앗는 존재, 고난, 시련 등의 의미를 가진다.
13 이 노래는 민요로서 형식적인 제약이 심하지 않으며, 민중들이 자유롭게 부른 것으로 창작과 전승이 쉬운 편이다.
14 ㉠에는 언어유희에 의한 표현이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은 의인법, ②는 비유, ⑤는 대구법이 드러난다.
15 두 작품 모두 민중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애환을 드러낸 민요이다. 민요는 적층 문학이며 구전되어 전한다.
16 시적 화자는 '문경새재'라는 고개를 넘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를 통해 '문경새재'는 시적 화자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17 민요는 노동이나 유희를 목적으로 서민들이 지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18 [다]에는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
19 시조는 고려 말에 발생하여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이다.
20 [가]에서 '깊은 시름'으로 글쓴이의 정서를 알 수 있고, '수루', '큰 칼' 등을 통해 글쓴이가 전쟁 중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나]에서는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뒤늦은 후회를 짐작할 수 있고, 두 작품 모두 4음보의 율격을 가진다.
21 전쟁 중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시적 화자에게 들리는 일성호가(一聲胡茄)는 화자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2 시적 화자는 '시름'에 빠져 있으며,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는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 주를 이루고 있다.
23 [나]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을 찾아볼 수 없다.
24 [나] 시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02 강 소설 (2)

핵심 다지기 p.012

1 절정 2 시점 3 1인칭 주인공 시점 4 직접
5 간접적 제시(보여주기) 6 진실성 7 갈등

성취기준 확인 문제 p.013

01-1 ③ 02-1 ⑤ 02-2 ① 03-1 외나무다리
03-2 ④

- 01-1 아이들을 내보내야 하는 영신과 쫓겨나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갈등이 잘 나타난다.
- 02-1 비가 올 조짐으로 위기감과 긴장감을 조성한다.
- 02-2 이 소설에서 ‘꽃’은 소녀를 상징하므로 ㉠은 소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03-1 팔이 없는 아버지와 다리가 없는 아들이 서로 협력하여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03-2 ‘외나무다리’라는 상황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서로 모자란 부분을 도와주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실력 다지기 p.014~017

1 ⑤ 2 ③ 3 삼척비수 4 ③ 5 ⑤ 6 ①
7 ⑤ 8 ② 9 애, 우리 학 사냥이나 한번 하구 가자. 10 ③ 11 ⑤ 12 ④ 13 ⑤
14 ㉠ 누이 ㉡ 금동이 ㉢ 별 ㉣ 초롱

- 1 고전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대부분이다.
- 2 설중매의 등장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위기감을 조성한다.
- 3 설중매는 이시백을 암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왔다.
- 4 박씨가 설중매를 웃으며 맞이하는 것은 반가움의 표현이 아니라 설중매를 안심시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이다.
- 5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이다.

- 6 시집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버지 송 참판이지 명혜의 뜻은 아니다.
- 7 가부장적 분위기가 지배적인 사회이지만 명혜나 안씨 부인은 송 참판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다.

Plus α! 글 속의 시대 상황과 오늘날의 현실을 비교해 보기

- 당시 : 3·1 운동 전후 시대 상황으로, 여성들은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신문물을 접한 여성들이 남성의 직업 영역(의사)에 진출하기 시작함
- 오늘날 : 양성 평등 사회로, 남성과 여성의 직업 영역이 구분이 크게 없음

- 8 이 글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 9 성삼이 학 사냥을 제안한 것은 도망가라는 뜻이다. 이념과 인간적인 모습을 찾고자 하는 휴머니즘 사이에서 갈등하던 성삼의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다.
- 10 학을 보면서 예전의 우정을 느끼게 되므로 학은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된다. → ‘학’은 우정과 인간애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구체적인 시대 상황을 생각해 가며 갈등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읽어 본다.
- 11 덕재는 이념적인 문제로 부위원장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빈농이라는 이유로 부위원장이 된 인물이다.
- 12 소설 속의 정서와 분위기는 인물의 상황, 심리, 주요 소재나 어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Plus α! 소설의 정서와 분위기

- 등장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형성된다.
 - 서술자의 어조나 표현을 통해 형성된다.
 - 작품 속에 나오는 소재를 통해 형성된다.
 -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
 - 작품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통해 드러난다.
- 13 소년은 고향과 누이를 그리워한다. → ‘누나별’에 나타난 어조와 이미지, 소재 등을 통해 정서와 분위기를 느끼며 감상한다면 이 작품은 좀더 가깝고 친근하게 ‘그리움’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 14 소년은 ‘별’을 보면서 누이를 그리워하고, ‘은녀’는 ‘초롱’을 들고 돌아오지 않는 금동이를 찾아다니고 있다.

03 강 수필 (2)

핵심 다지기

p.018

- 1 수필 2 글쓴이 자신 3 독자 4 지식
5 구성 6 사실 7 가치관

성취기준 확인문제

p.019

- 01-1 ④ 01-2 ② 01-3 달 02-1 ① 02-2 죽고 싶었다.

- 01-1 이 글은 달밤에 한 노인을 만난 체험이다. 특별한 사건 보다는 서정적인 분위기와 정서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이 옳다.
01-2 이 글은 간결한 문장을 주로 쓰고 생략적인 표현이 많다. 또한 ‘달’을 통해 향토적 서정성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유머나 해학은 찾아볼 수 없다.
01-3 이 글의 배경이 되는 밝은 달밤은 노인과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02-1 글쓴이는 힘들게 쓴 논문을 도둑 맞고 절망에 빠져 있다. 그러나 가족의 위로를 받고 싶다는 내용은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02-2 글쓴이의 절망이 나타나는 행동들을 볼 수 있지만 ‘죽고 싶었다.’라는 말에 글쓴이의 직접적인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실력 다지기

p.020~023

- 1 ④ 2 논문을 잃어버린 사건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인생에서 ‘다시 시작하기’의 중요성을 알게 해 준 소중한 사건이었으므로 3 ② 4 ④ 5 혼자 정상에 오를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산을 내려갈 것인가.
6 ⑤ 7 ①, ⑤ 8 ④ 9 ④ 10 ② 11 ① 12 ④ 13 독자들의 소리 없는 격려와 질책 14 ① 15 ⑤

- 1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을 사실 그대로 쓴 글이다.
2 힘든 일이었지만 소중하다고 표현한 것은 그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많다는 의미이다.
3 이 글의 내용은 어려움을 겪은 뒤 다시 시작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오답풀이

- ①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사람이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
③ 잘 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가뜩이나 미운 사람이 더 미운 짓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잘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장래성이 엿보인다는 말
4 이 글의 주제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기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한다는 내용은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
5 글쓴이는 정상을 눈앞에 두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6 욕심을 부리다가는 글쓴이는 물론이고 따망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하산을 결정했다.
7 자신의 몸도 힘들면서 장갑을 좁기 위해 애쓰는 따망에게서 감동과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8 따망의 끈끈한 동료애를 느끼게 해 준 장갑이므로 ‘제상에서 가장 따뜻하다.’고 표현했다.
9 글쓴이는 자신의 포레 아이들을 유치하다고 여기며 무시하고 있다.
10 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두려는 글쓴이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한 말이다.
11 이 글에서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12 글쓴이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면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베풀고 있다.
13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고 차를 대접하는 것은, 글쓴이가 더 열심히 좋은 글을 써 주기를 바란다는 독자의 마음이다.
14 글쓴이가 누군가에게 빛을 지게 된, 여러 종류의 경험을 일화처럼 나열하여 작가의 인생관을 전달하고 있다.
15 평생 자신이 더 열심히 노력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을 통해 글쓴이의 인생관을 확인할 수 있다.

04 강 시나리오(영화 대본)

핵심 다지기

p.024

- 1 시나리오 2 지시문 3 하강 4 F.O.
5 몽타주 6 내레이션 7 덜 받는다 8 O.L.

성취기준 확인문제

p.025

- 01-1 ④ 01-2 엄석대 01-3 내레이션 01-4 ⑤
01-5 담임의 부임

01-1 ④는 희곡의 특징이다. 시나리오는 희곡과 달리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Plus α! 시나리오의 특성

- 영화, 드라마 상영을 목적으로 함
- 장면 S(#)을 기본 단위로 함
- 시간과 공간, 등장 인물 수 제약 적음
- 촬영을 고려한 특수 용어가 사용됨

01-2 절대 권력을 가진 엄석대는 영웅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의 빼돌려진 권력은 새로운 개혁 세력 앞에 무너지고 만다.

01-3 인물의 목소리로만 표현하는 것으로, 희곡에서의 방백에 해당한다.

01-4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시험지에 석대의 이름을 대신 써서 냈기 때문에 석대의 성적이 계속 잘 나온 것이다.

01-5 김 선생은 시골 학교에 새로 부임한 인물로, 석대의 비리를 넘어가지 않고 개혁하려는 의지를 지닌 인물이다.

실력 다지기

p.026~029

- 1 ④ 2 ③ 3 어무이 색안경 해 드릴라고 4 ③
5 ⑤ 6 초원이 운동장 100바퀴를 다 도는 것을 본 후 초원이 진짜 달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7 정욱의 표정 진지해진다. 8 ⑤ 9 ③
10 ① 11 ① 12 ③ 13 천 원짜리 두 장 14 ⑤ 15 현우는 악기에 소질이 있는 용석의 꿈을 밀어주기 위해 관악부에 보내주길 원하고, 용석의 아버지는 용석이가 돈을 벌 수 없는 음악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16 ③ 17 ③

1 ①은 S#, ②는 F.I., ③은 E., ⑤는 O.L.에 대한 설명이다.

2 우리이의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는 담임과 훔치지 않았다는 여민의 외적 갈등이 두드러진다.

3 여민의 어머니는 잉크 공장에서 일하다가 약품이 눈에 튀는 바람에 왼쪽 눈이 하얗게 바래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여민은 그런 어머니를 위해 안경을 사고 싶어 한다.

4 기종이가 반장을 때리는 이유는 반장이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여민이를 도둑으로 몰았기 때문이다. 친구를 위하는 행동이므로 폭력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제대로 마라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경숙의 기대와는 달리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6 정욱은 그저 생각없이 던진 말을 곧이 곧대로 듣고 운동장을 다 뛰는 초원을 보면서 초원이 정말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7 정욱의 표정 변화에서 심리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8 경숙은 자폐아인 초원이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그것이 자신이 유명해지고 싶어서는 아니다.

9 장면 번호는 편집의 순서를 알기 위한 것이지만 번호 순서대로 촬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

10 ①은 상우가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고, 나머지는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으로 흘리는 눈물이다.

11 이 부분은 할머니와 친해지지 못하던 상우가 헤어지게 될 순간에 할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슬퍼하는 부분으로 구성 단계상 대단원에 해당한다.

12 상우가 글씨를 따라 쓰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화를 내고는 있지만 그것은 화를 낸다기보다는 애정이 담긴 속상함의 표현이다.

13 할머니가 힘들게 번 돈으로 건전지 살 돈을 챙겨준 것을 보고 상우는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깨닫고 미안함을 느끼게 된다.

14 시나리오는 서술자가 드러나지 않고,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⑤는 소설의 특징이다.

15 용석의 꿈을 찾아주고 싶은 현우와 현실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용석 부의 갈등이다.

16 용석의 아버지는 용석이가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음악을 하다가 자신처럼 가난하게 살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용석의 아버지는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7 용석의 아버지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용석의 꿈을 밀어주지 못하는 것에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찾아온 현우에게도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화난 표정은 어울리지 않는다.



05
강

영역 종합 문제(문학)

p.030~035

- 1 ① 2 ② 3 ④ 4 잠 못 든 이 5 ⑤ 6 ④
7 ⑤ 8 ⑤ 9 ② 10 농민 동맹 부위원장
장 11 ③ 12 ③ 13 ⑤ 14 머리털이 주
뺨 서도록 섬뜩했다. 15 ③ 16 ③ 17 자신이
좋아하는 혜연이 철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
서 18 ⑤ 19 ② 20 ① 21 그 등은 알맞
게 따뜻했고 어느 때보다 넓고 관대하게 느껴졌다.
22 ③ 23 금 24 ④ 25 ④ 26 ⑤

- 1 [가]와 [라]의 시적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이다. 그러
나 이별에 대한 후회의 정서는 찾아볼 수 없다.
- 2 이 글의 갈래는 '시'이다. ②는 설명문에 대한 설명
이다.
- 3 '달 밝은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에서 화자의 밝은 정서
는 찾아보기 힘들다.
- 4 '가장 낮은 곳'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
는 곳이라는 뜻으로 '잠 못 든 이'와 의미가 통한다.
- 5 ⑤ 원망스러운 마음이 아닌 슬픔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 6 이 글에 나타나는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이다.
- 7 ⑤의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 8 만도는 진수가 장애를 입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
기 때문에 상이군인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다.
- 9 다리가 한쪽이 없는 것을 본 만도가 충격을 받은 모습
이다.
- 10 덕재가 북한에 협조한 것 때문에 성삼이 덕재를 잡아가
고 있다.
- 11 수필은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느끼는 다
양한 정서와 분위기가 담겨 있는 글이다.
- 12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돈을 빌려주는 것으
로 보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따뜻하고 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3 아주머니가 베풀어 준 온정을 글쓴이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이다.
- 14 눈 속에 파묻힌 시체를 보고 느낀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 15 이 글은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의 희곡에 비해 시간,
공간의 배경에 제한을 적게 받는다.
- 16 지금 상우는 철이를 놀리려는 의도로 거짓말을 하고 있
기 때문에 ③이 가장 적절한 지시문이다.

- 17 상우는 혜연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런 혜연이 철
이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질투가
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 18 초원은 자폐아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
정욱은 힘들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초원이를 엄마 욕
심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마라톤을 시키고 있다고 생
각한다.
- 19 시행의 길이를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운율을 만들어 내
고 있지는 않다.
- 20 소년의 고향 마을을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고 있으므로
'묘사'에 해당된다.
- 21 글쓴이가 아버지를 믿고 의지함을 알 수 있게 하는 부
분이다.
- 22 ㉠은 누나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소년의 모습
이다.
- 23 금 밖에 앉은 아이들을 내보내야 하는 영신과 나가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갈등이 시작된다.
- 24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을 거라
고 거버 박사가 격려하고 있다.
- 25 여민이는 아이들이 어머니를 놀리는 것을 싫어한다. 그
만큼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6 자신에게 안경을 사 주려다가 도둑 누명을 쓴 아들이
안쓰럽다.

06
강

대화 · 재담

핵심 다지기

p.036

- 1 지식 수준, 관심도, 나이, 성별 2 관계, 정보
3 웃음 4 사회 · 문화, 비판 5 패러디

성취기준 확인문제

p.037

- 01-1 ④ 01-2 말하기 방식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02-1 ⑤ 02-2 ④

- 01-1 아인은 옥림의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여 그에 대해 자기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고 있다.
- 01-2 옥림은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로 속상했던 감정을 위로 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아인은 옥림의 상황을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한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 02-1 ⑤는 '명언'에 대한 설명이다.
- 02-2 [다]는 외국인들이 하는 풍조를 그대로 따르는 세태를 풍자하며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실력 다지기

p.038~041

1 ⑤ 2 ② 3 ② 4 ② 5 대화를 할 때에는 대화 상대를 고려하여 대화의 내용과 말하기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 6 ② 7 ① 8 ① 9 ② 10 ① 11 ② 12 ④ 13 •행인의 말을 이용하여 공짜로 잣을 집어 먹는 선달의 모습 • '웃이오'가 '오시오'로, '잣이오'가 '자시오'로, '갓이오'가 '가시오'로 발음되는 것을 이용하여 재치있게 잣을 얻어먹는 것이 웃음을 자아냄 14 ② 15 ③ 16 ㉠ 웃음 ㉡ 발음 17 ④ 18 ⑤ 19 ③ 20 (1) 풍자 (2) 결말, 말놀이 (3) 반응 21 ⑤ 22 ③

- 1 대화를 할 때에는 우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뒤이어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말해야 한다.
- 2 대화 내용을 선정할 때 대화 상대의 외모나 목소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 3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 4 '토의'는 정보 지향적인 성격을 지닌다.
- 5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면 올바른 대화라고 볼 수 없다.
- 6 ②는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대화이고, 나머지는 정보를 얻기 위한 대화이다.
- 7 [가]: 교사는 학생과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아직 대화를 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학생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관심사인 줄넘기에 대해 먼저 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결국 교사의 말하기 방식은 학생의 마음을 열게 하는 데 목적을 둔 관계 중심의 대화이다.

[나]: 교사는 힘들고 지칠 때 인사가 갖는 의미를 학생에게 전달하고자, 인사를 했을 때 그 말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결국 교사의 말하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정보 중심의 대화이다.

- 8 들은 내용 모두를 개관하려고 하는 것은 듣기의 부정적인 태도이다.
- 9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지식 수준 및 상황, 관심, 성별, 나이, 직업, 나와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10 대화를 나눌 때는 솔직하게 말하되, 상대의 감정이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

Plus α! 상대를 고려하며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

- 상대에 따라 대화의 화제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대화의 화제와 방식이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발전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11 볼 만한 드라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대화의 유형이다.
- 12 재담은 소리에서부터 단어, 구절, 하나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 13 봉이 김 선달은 발음이 같은 말을 재치있게 이용하여 잣을 얻어 먹는다.
- 14 따돌림이란 말로 학생이라고 짐작하게 하였다가, 선생님이라는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15 재담은 긴장을 풀어 주고, 정신을 순화해 주며,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 준다.
- 16 재담은 익살과 재치가 담긴 이야기로, 웃음을 유발한다.
- 17 재담의 발상은 예측했던 말이나 상황과는 다른 경우에 생길 수 있다.
- 18 재담은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시대상이나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사회를 비판하기도 한다.
- 19 '통장'이라는 말의 동음 이의어를 사용하여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이다. '통장'은 '금융 기관에서 예금한 사람에게 출납의 상태를 적어 주는 장부', '행정 구역의 단위인 통(統)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0 재담을 통해 우리 사회와 문화의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재담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
- 21 사회 비판적인 재담은 웃고 즐기는 가운데서도 비판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22 제시된 재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가 멀어진 것과 대화가 필요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07 강 인터넷 토론

핵심 다지기

p.042

- 1 토론, 인터넷 토론 2 저작권, 초상권 3 통신 언어 4 일반 토론 5 인터넷 토론

성취기준 확인 문제

p.043

- 01-1 ④ 01-2 ④ 01-3 ⑤ 01-4 문화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관점

- 01-1 인터넷 토론은 인터넷상에서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밝히는 말하기로, 문자 언어를 주로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01-2 인터넷 사용은 얼굴을 마주 보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언어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01-3 개고기가 영양이 풍부한 전통 음식이라는 의견은 ‘녹차조아’의 의견이다.
01-4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잡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실력 다지기

p.044~047

- 1 ⑤ 2 ⑤ 3 잠깨고보자 4 (예시답) 익명성을 지녀 책임 의식이 적어진다. 직선적·적대적·선정적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5 아장아장, 희망, 떼떼모이, 태권뽀이, 즐즐즐 6 ② 7 (1) × (2) × (3) × (4) ○ (5) × 8 ③ 9 ③ 10 밥먹고보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험한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① 12 ② 13 ② 14 ① 15 ③ 16 ③ 17 ②

- 1 [가]는 일반 토론, [나]는 인터넷 토론이다. 인터넷 토론과 일반 토론은 둘다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에 말을 주고받는 집단적 상호 작용의 한 형태이다.

Plus α! 인터넷 토론과 일반 토론의 차이점

인터넷 토론	일반 토론
• 특별한 사회자가 없음	• 사회자가 있음
• 토론 참가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음	• 토론 참가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음
•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토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음	•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 토론 참가자가 모여서 진행함

- 2 ⑤는 토론에 대한 주제가 아닌, ‘토의하기’의 주제로 적합하다.
3 ‘잠깨고보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말을 하고 있다.
4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많은 단점과 부작용이 나타난다.
5 인터넷 토론에서의 예절을 지키고 있지 않다.
6 인터넷 통신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이다.
7 인터넷 게시판의 글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 초상권, 인권, 언어 예절 등을 지켜야 한다.
8 ID ‘jeejeebae’는 통신 언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9 ③은 성형 수술 반대의 입장이다.
10 토론에 참여한 사람 중, ‘밥먹고보자’는 ‘당근이요’의 의견에 대해 근거 없는 말을 들어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11 인터넷 토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2 인터넷 토론은 누리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주고받는 일이다. 서로 간에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비판이 따라야 한다.
13 인터넷 토론은 익명성을 지니지만(상대가 누군지 몰라도 토론이 이루어짐), 일반 토론은 참가자가 서로 얼굴을 대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14 ‘보라’는 두발 자유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나머지 학생들은 찬성하고 있다.
15 ‘안00(anjuneyxxxx)’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16 게시판의 내용을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했는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시했는지 비판적으로 판단한다.
17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댓글은 부적절한 댓글이라 할 수 없다.

08 강 건의문

핵심 다지기 p.048

1 건의문 2 문제, 요구 사항 3 가능성 4 명확
5 문제 해결 방안 제시 6 상소문

성취기준 확인 문제 p.049

01-1 ③ 01-2 ⑤ 01-3 ④ 01-4 [가] : 안전하게 자 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 :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총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 01-1 건의문은 어떤 문제에 대한 개선 또는 해결을 요구하는 글로서, 읽는이를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이다.
- 01-2 건의문을 통해 공동체의 생활에서 겪는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좀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01-3 ④는 수필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다.
- 01-4 요구 사항은 글의 중간이나 끝 부분에 나타난다.

실력 다지기 p.050~053

1 ② 2 ④ 3 ① 4 사람마다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존중하며 사랑할 줄 아는 가치관 5 ④ 6 급경사 길이 국방부 땅이라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7 ② 8 ④ 9 ④ 10 ④ 11 ④ 12 ③ 13 ⑤ 14 ③ 15 ② 16 •요구 사항 : '남북 말글 통일을 위한 공동 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하시고 합의해 주실 것 •건의를 하게 된 이유 : 남북 말글 통일의 필요성을 느껴서 17 ②, ④

- 1 [나]는 장애인 인형을 통해 약자를 보살피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 2 ④는 설명문의 목적에 해당한다.
- 3 건의문은 설득적, 주관적 성격을 지닌다.
- 4 예쁜 인형이나 장애인 인형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똑같이 존중하며 사랑할 줄 아는 태도나 마음이 짐을 의미한다.
- 5 글쓴이는 눈이 오면 미끄러운 길 때문에 버스가 오지 않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 6 마을 입구의 급경사 길이 국방부 소속의 땅이기 때문에 주민 센터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 7 눈이 와도 차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 사람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공정한 일이다.
- 8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간곡한 부탁의 표현으로 읽는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 9 건의문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성'을 지닌다.

Plus α! 건의문의 판단 기준

공익성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질
공정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평하고 바른 성질
합리성	타당성	누구나 두루 인정할 만큼 객관성을 띠고 있는 것
	실용성	실제로 쓸모가 있는 성질
	실현 가능성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 10 건의 사항에 대한 대가는 나와 있지 않다.
- 11 어린이 보호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 12 문제 상황은 아빠가 너무 바빠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 13 건의문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이다.
- 14 이 글은 건의하는 글로서, 글쓴이 나름대로의 논리를 토대로 요구 사항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건의 사항과 그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 15 건의문은 합리성, 공익성, 공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주장하는 글이므로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다.
- 16 제시된 글의 앞부분에 인사말과 함께 요구 사항과 건의하게 된 이유가 드러나 있다.
- 17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자기만의 주관적인 생각을 담고 있으므로 근거가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의 건의문이다.



09

강 격려문 · 위로문

핵심 다지기

p.054

- 1 위로 2 격려 3 참신 4 공감 5 명언,
격언 6 간접적인 7 거리두기

성취기준 확인문제

p.055

- 01₁ ④ 01₂ ② 01₃ ③ 01₄ 일 초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너니까 언어의 장벽도 곧 극복할 수 있을 거야. 01₅ ③

- 01₁ [가] : 홍수 피해를 입어 힘든 친구를 위로 · 격려,
[나] : 언어 장벽을 극복해야 할 친구를 위로 · 격려
01₂ 위로와 격려의 글을 쓴다고 해서 상대방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01₃ 격려문은 상대가 처한 상황을 파악한 후,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여 다양한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
01₄ 사람이 일 초도 쉬지 않고 공부할 수는 없으므로 과장된 표현이다.
01₅ 원래는 ‘너도 우리 아버지가 낙천적이라는 것 알지?’ 인데, ‘너도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문단의 순서를 바꾸었다.

실력 다지기

p.056~059

- 1 ⑤ 2 ④ 3 ② 4 ③ 5 ② 6 ④ 7
① 8 ④ 9 ⑤ 10 ① 11 ② 12 ㉠, ㉡
13 ③ 14 ④ 15 오!케!멍!케! :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음, 내키를부탁해 : 주제와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16 ③ 17 ③ 18 ⑤
19 ④ 20 ① 21 ④ 22 ②

- 1 부모님의 식당 폐업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고민하고 있다.
2 ④는 ‘비유하기’의 방법으로 쓴 표현이다.
3 힘들어하는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위로하는 내용이 좋다.
4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은 상대방이 용기를 갖고 힘을 낼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도울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 5 화려한 수식어보다 글쓴이의 진심이 담긴 표현이 중요하다.
6 격려나 위로는 어려움을 만나 좌절하거나 실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슬픔을 달래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상대의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준다는 생각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7 이 글은 속담을 인용하거나 변화주기의 방식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8 본문의 내용 ‘네가 정말 그 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용기를 내어 사과해 봐.’를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9 지나치게 진부하거나 상투적인 표현은 오히려 표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10 **오답풀이**
② 아무리 힘이나 밀전을 들여도 보람없이 헛된 일이 되는 상태를 의미
③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
④ 잘 되리라고 믿고 있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은 따라서 잘하게 된다는 의미
11 상대방을 다그치거나 비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 격려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13 ③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키기 힘들다는 뜻이다.
14 키가 남들보다 작다는 것이 글쓴이의 고민이다.
15 격려와 위로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내용과 표현을 검토하여 진실한 글이 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다.
16 상대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여 표현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17 ‘키바이러스’와 ‘키큰놈키작은놈’은 ‘우리’라는 말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
18 이 노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어 듣는 이로 하여금 용기와 힘을 주고 있다. 따라서 취업 때문에 힘들어할 형진에게 이 노래를 들려준다면 큰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9 ①, ②, ③, ⑤는 비유법, ④는 강조법에 해당한다.

- 20 자책하는 태도는 옳바르지 않다.
- 21 격려나 위로의 글은 독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용기나 의욕을 북돋워 힘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 22 효과적인 표현은 겉만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독자의 마음이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글쓴이의 진심이 담긴 독창적이고 신선한 것이어야 한다.

10 강 전기문

핵심 다지기

p.060

- 1 전기문 2 교훈 3 배경, 인물, 사건, 비평
4 시대적, 사회적, 공간적 5 집중적 구성 방식
6 회고록 7 평전 8 비평

성취기준 확인 문제

p.061

01-1 ③ 01-2 ⑤ 01-3 ㉠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러 권의 책을 보자기에 써서 다녔기 때문에 ㉡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주시경의 말에 따라 '주시경'이라는 이름을 우리글로 옮겨 쓰면 '두루때글'이 되기 때문에 01-4 ⑤ 01-5 ②

- 01-1 이 글은 실존했던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문이다. 전기문은 실존했던 인물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01-2 자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온 각설이패들을 쫓아보내지 않은 임방울의 모습에서 자신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리를 들려주려 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 01-4 1900년도에는 지금과 달리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 01-5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허구적인 이야기인 데 반해, 전기문은 실제 인물과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실력 다지기

p.062~064

- 1 ② 2 ③ 3 ④ 4 ③ 5 ③ 6 ㉠ 살신성인(殺身成仁) ㉡ 결초보은(結草報恩) 7 ⑤ 8 ② 9 ⑤ 10 ② 11 ④ 12 ③ 13 ④ 14 ① 15 일화(逸話)

- 1 전기문에서는 다루고 있는 인물의 개성과 가치관이 드러난다.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글은 수필이다.
- 2 전기문에 담긴 글쓴이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비판하며 읽는 것도 능동적 읽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3 ④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4 우리 몸 안에는 스스로를 낮게 하는 힘이 있으며, 의사는 환자를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하였다.
- 5 전기문은 인물에 대한 작가의 평가가 가미되기도 한다.
- 6 • 살신성인(殺身成仁) :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
• 구밀복검(口蜜腹劍) :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 설상가상(雪上加霜) :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달아 일어남을 이르는 말
• 결초보은(結草報恩) :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 금상첨화(錦上添花) :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7 전기문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의 일생을 기록한 글로서, 작가의 상상이 가미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 8 **오답풀이** ① 회고록 ③ 자서전 ④ 평전 ⑤ 열전
- 9 ⑤는 논설문에 관한 설명이다.
- 10 이 글은 우리말 점자를 만들기 위해 애쓴 박두성의 삶에 대한 글이다.
- 11 밥 먹는 것도 잊고 점자 연구에 몰두해 있는 박두성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12 박두성은 눈병 때문에 잠시 한글 점자 연구를 멈추게 된다. 시련을 이겨내고 성취를 이룩한 것이다.
- 13 이 글의 종류는 전기문이다. ④는 수필을 능동적으로 읽는 방법에 해당한다.



Plus α! 전기문을 읽는 방법

-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파악하며 읽는다.
- 일화에 나타난 인물의 가치관이나 성격 등을 파악하며 읽는다.
- 인물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공간적 배경을 고려하며 읽는다.
-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감동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는다.

14 전기문의 구성 요소는 ‘배경, 인물, 사건, 비평’이다.

15 전기문은 실제 있거나 있었던 특정한 인물의 생애, 업적, 일화 등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독자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기 위한 글이다.

11

영역 종합 문제(비문학)

p.065~069

- 1 ② 2 ② 3 언문, 기예 4 ③ 5 ④ 6 ⑤
7 설득 8 ① 9 ① 10 ③ 11 ③
12 ④ 13 ① 14 ② 15 ① 16 •적절하지 않은 댓글 : 내 키를 부탁해 •이유 : 글쓴이의 고민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17 ④ 18 ⑤
19 ⑤ 20 ① 21 ② 22 ③ 23 ③
24 ③, ⑤ 25 군사의 위력을 떨쳐 적의 소굴을 소탕하는 것 26 ③

- 1 이 글은 건의하는 글이다.
- 2 무지한 백성을 생각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다.
- 3 ‘훈민정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담긴 말이다.
- 4 사대주의 : 주체성 없이 세력이 큰 나라나 세력권에 붙어 세력을 유지하려는 태도
- 5 건의문의 각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어 쓸 필요는 없으나 받는 이, 건의 목적, 문제 상황, 요구 사항이나 해결 방안 등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건의하는 이의 이름과 신분도 앞 부분이나 끝 부분에서 밝히는 것이 좋다.
- 6 훈민정음은 우리 고유의 문자로 창제한 것이다.
- 7 이 글은 정중한 말투로 청중에게 호소하고 있다.
- 8 전 세계의 어른들에게 빈곤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9 소녀는 미래를 살아갈 세대들을 위해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전쟁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10 격려와 위로는 상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있을 때, 용기가 필요할 때 등에 필요한 말이다.

11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12 속담을 인용하고 있다.

13 꿈이 좌절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노래이다.

14 격려와 위로의 글은 읽는이의 상황에 맞추어 써야 하므로 그때그때 상황과 읽는 사람의 성격을 고려하여 참신하게 쓴다.

Plus α! 격려와 위로의 글을 쓸 때 유의할 점

-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에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상투적인 표현은 글의 표현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15 시작 부분에 자기 소개와 함께 바로 제시되어 있다.

16 인터넷 게시판은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켜서 댓글을 달아야 한다.

17 박사의 취미 생활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18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월급까지 털어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비 전액을 대신 내거나 환자들을 탈출시키는 등 자신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했다.

19 인물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가 나타난다.

20 ㉠~㉣은 장기려 박사의 욕심없고 소박한 삶을 말해 준다. ㉠은 박사의 외적인 업적을 보여 준다.

21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하게,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장기려 박사는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았다.

22 모래 운동장의 문제점과 잔디 운동장의 장점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23 친구의 부상에 찬빈이는 모래 운동장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24 ③은 글의 처음 부분에, ⑤는 글의 ‘가운데’ 부분에 써야 할 내용이다.

25 본문의 “만일 군사의 위력을 한번 떨쳐 그들의 소굴을 소탕하지 않는다면 육진은 끝내 편안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26 이 글은 신하가 임금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상소문이다.

12 강 관용 표현

핵심 다지기

p.070

- 1 관용어 2 문화 3 유래담 4 속담 5 명언 6 손을 씻다

성취기준 확인 문제

p.071

- 01-1 ⑤ 01-2 ⑤ 01-3 무심해 02-1 시침을 떼고 02-2 ④

- 01-1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01-2 남의 말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닌 표현이다.
01-3 ‘소 닭 보듯이’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이다.
02-1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할 때 쓰는 표현이다.
02-2 손에 잡힐 듯이 가깝게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실력 다지기

p.072~074

- 1 관용어 2 ④ 3 ③ 4 ④ 5 ④ 6 ③
7 ① 8 ② 9 ② 10 눈 11 ③ 12 ⑤
13 ① 14 역사성, 사회성 15 ② 16 ⑤
17 시침미를 떼다. 18 ② 19 ③

- 1 관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2 속담은 대개 문장의 형태로 표현된다.
3 ① 옆지른 물 ② 입을 뗐다 ④ 시침미를 떼며 ⑤ 입을 모았다.
4 ④는 ‘교제나 거래 따위를 중단하다.’라는 뜻이다.
오답풀이
① 하지 않던 일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다.
② 어떤 사람의 손아귀에 잡혀들다.
③ 부정적인 일에 대한 관계를 청산하다.
⑤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
5 ‘허가 굶다.’는 ‘놀라거나 당황하여 말을 못하다.’라는 뜻의 관용적 표현이다.
6 ‘하늘을 찌를 듯했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상황을 더욱 실감 나게 나타내고 있다.

- 7 관용어는 일반적인 낱말로 이루어져 있으나, 관용어가 표현하는 의미는 그 낱말의 기본적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8 오답풀이

- ① 목숨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
③ 너무 결벽하면 사람이 따르지 않음을 비유
④ 사람은 걸만 보고는 알 수 없음을 이르는 말
⑤ 남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을 잡음을 이르는 말

- 9 ㉠ : 죽어서 땅에 묻히다.

- 10 • 눈에 익다. : 여러 번 봐서 낯설지 않다.
• 눈이 가다. : 시선이 향하여지다.
• 눈이 맞다. :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하다.
• 눈에 밝히다. : 잊으려고 해도 눈에 선하게 나타난다.
• 눈이 많다. : 주변에 보는 사람이 많다.
• 눈 밖에 나다. : 몹시 미움을 사다.

11 오답풀이

- ① 아주 쉬운 일
② 목숨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
④ 일을 그르친 후에 고치거나 바꾸려고 함
⑤ 강한 자들의 싸움에 약자가 끼여 피해를 봄

- 12 ‘물 밖에 난 고기’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을 빗댄 표현이다.

- 13 ②는 ‘눈에 띄다’, ③은 ‘눈에 들다’, ④는 ‘눈 밖에 나다’가 적절하다.

- 14 언어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바뀌었으므로 ‘역사성’이, 기본적인 문장 구조나 의미는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회성’이 나타난다.

- 15 ‘손에 걸리다.’는 ‘어떤 사람의 손아귀에 잡혀들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 16 김치국부터 마신다. : 상대방의 속도 모르고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행동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7 ‘시침미를 떼다.’는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라는 뜻으로, 유래담이 있는 관용어이다.

18 오답풀이

- ① 몹시 안타깝게 기다림
③ 무척 쉬움
④ 마음에 들지 않음
⑤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혀 일하지 못함

- 19 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④ 등잔 밑이 어둡다.
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13

강 지시어 · 매체 언어

핵심 다지기

p.075

- 1 지시어 2 간결, 효율, 반복 3 미끄러지듯 유유
히 헤엄치다 4 매체 5 인쇄 6 디지털 통신

성취기준 확인 문제

p.076

- 01₁ ④ 01₂ 동그라미 01₃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
하는 02₁ ③ 02₂ ③

- 01₁ 말이나 글을 짧게 하는 것이 그 글이나 말의 의미를 분
명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01₂ '이렇게'는 자신이 문제를 푸는 방식에 초점을 둔 표현,
'그렇게'는 상대방이 문제를 푸는 방식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01₃ 이 문장의 '그런'은 되풀이하는 말을 대신 가리키고
있다.
02₁ 자판을 누르는 데 시간과 노력이 훨씬 줄어 경제적이다.
02₂ 이모티콘은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을 부호를 사용해 만
든 것으로, 이것을 사용하거나 소리나는 대로 쓰면 말
하는이의 감정을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다.

실력 다지기

p.077~079

- 1 ⑤ 2 ⑤ 3 ① 4 인터넷, 휴대 전화 문자 메
시지 5 ⑤ 6 ④ 7 ④ 8 (1) 여기, (2) 저기
9 ⑤ 10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
11 ⑤ 12 ⑤ 13 ⑤ 14 ④ 15 이모티콘
16 ④ 17 ③ 18 ⑤ 19 이, 그

- 1 사물을 가리키는 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구분하여
사용한다.

Plus α! 지시어 사용의 효과

- 대화나 글에서 앞에 나온 말이나 구절, 문장이나 글
전체를 가리켜 불필요하거나 반복되는 표현을 피하
고, 문장을 간결하게 만든다.
-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의 의미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여, 대화나 글을 짜임새 있게 만들며 통일성을 높
여 준다.

- 2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내면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문자
는 사전에 계획할 수 있고, 한 번 쓴 내용이라도 다시
수정하여 쓸 수 있다.
- 3 '그녀'는 3인칭 지시어이다.
- 4 글로 쓰지만 직접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언어 사용
방식이 나타난다.
- 5 방송 매체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6 디지털 통신 매체는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의 단점이
보완되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이다.
- 7 음성과 영상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는 방송 매체 중 '텔레비전'이다.
- 8 말하는이에게 가까운 것을 지시하는 말은 '여기', 말하
는이와 듣는이 모두에게 멀리 있는 것을 지시하는 말은
'저기'이다.
- 9 텔레비전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몸짓과 표정 등이 복
합적으로 사용되는 매체이며, 라디오는 주로 음성 언어
를 위주로 하는 매체로 텔레비전에 비해 방송 시간에
따라 청취자 계층이 분명히 나뉘며, 청취자 참여의 폭
이 더 넓은 편이다.
- 10 주된 요지가 내포된 말은 '나눔'이다.
- 11 ⑤는 방송 매체 중 텔레비전에 사용된 언어 사용 방
식을 설명하고 있다.
- 12 ㉔의 '당신'은 기사를 의미하고, 나머지는 만식의 아
버지를 의미한다.
- 13 인터넷 매체 언어는 자칫 예절에 어긋난 표현을 쓸 가
능성이 높다.
- 14 인터넷 매체 언어 사용의 유의점은 인터넷의 속성과 관
련지어 파악해 본다.
- 15 ㉑, ㉒과 같은 시각적 기호는 음성 언어의 표정, 몸짓,
억양, 어조 등과 같은 역할을 하여 표현하는 이의 감정
과 기분을 드러낸다.
- 16 텔레비전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결합된 형태이다.
- 17 ③의 지시어는 '쓰던 연필'을 의미한다.
- 18 지시어를 남용할 경우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
- 19 말하는이에게 가까운 것을 지시하는 말은 '이', 듣는이
에게 가까운 것을 지시하는 말은 '그'이다.

14 영역 종합 문제(문법)

p.080~084

- 1 ③ 2 ④ 3 산통을 깨다. 4 ③ 5 ④
6 ⑤ 7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솔뚜껑 보고 놀란다.
8 ③ 9 (1) ㉠ (2) ㉡ (3) ㉢ 10 ④ 11 ⑤
12 ③ 13 ④ 14 ⑤ 15 ③ 16 ①
17 도루묵이다 18 ② 19 ① 20 (1) 무, 파, 콩나물 (2) 환경 보호 운동 (3) 연애의 정석 21 ④
22 (1) ㉠ (2) ㉡ (3) ㉢ (4) ㉣ (5) ㉤ 23 ④ 24
(1) ㉠, ㉡, ㉣ (2) ㉢, ㉤ 25 ③ 26 ③ 27 (1)
㉠, ㉢, ㉣, ㉤, ㉥ (2) ㉡, ㉣, ㉤, ㉥, ㉦ 28 ①
29 ② 30 ④

- 1 지시어의 사용은 같은 어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문장을 간결하게 한다.
2 '하던 일에 박차를 가하십시오.'라는 표현으로 쓴다.
3 관용어를 이용한 관용 표현의 예로,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는 관용어의 의미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4 ① 어떤 일을 망치거나 실패함
② 흡족하게 마음에 들
④ 겁이 없고 매우 대담함
⑤ 시험에서 낙방하거나 경쟁에서 탈락함
5 의사소통 방식으로 통신 매체에서는 음성 언어를, 인쇄 매체에서는 문자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6 지시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내용이 상세해지는 것은 아니다.
7 속담은 조상의 삶과 지혜가 담겨 있으며, 그 내용이 풍자적이거나 교훈적인 경우가 많다.
8 음성 언어는 청각에 의존하며, 말하는 순간 바로 사라진다.
9 '눈—'이라는 신체와 관련된 관용 표현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사용하므로 주의 깊게 익혀 두어야 한다.
10 지시어를 남용하면 의미 전달이 불분명해진다.
11 인터넷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퍼질 가능성이 크다.
12 ① 낮가죽이 두껍다.
② 산 입에 거미줄 치다.
④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⑤ 발을 끊었다.
13 원시 시대에는 음성 언어가 주된 소통 방식이었다.
14 '빛 좋은 개살구'는 겉만 그럴 듯하고 실속은 없음을 일컫는 속담이다.

- 15 지시어는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리키거나 이미 나온 말을 가리킬 때 쓰는 것으로, 글의 내용을 풍성하게 꾸며 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16 '미역국을 먹다.'는 '시험에 떨어지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17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일이나 헛수고'를 이르는 관용어이다.
18 '손이 놀다.'는 일자리가 없어 쉬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일하는 동작이 매우 굼뜨다는 뜻의 관용어는 '손이 뜨다.'이다.
19 문자 언어가 발명되었으므로 그것을 이용한 다양한 매체가 생겼을 것이다.
20 밑줄 친 지시어들은 모두 앞에 나온 말을 가리키고 있다.
21 각 나라마다 비슷한 상황을 나타내는 관용 표현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나라마다 의식주가 다르고 풍속이나 관습의 차이가 있기에 표현상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22 (1) 손을 끊었다, (2) 손에 땀을 쥐게 하는, (3) 손에 걸리듯, (4) 손을 내밀, (5) 손에 잡힐 듯하다.
23 제시된 지문은 문자 언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신문 기사이다. ④는 라디오 매체의 특징이다.
24 말하는이와 듣는이에게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 저' 중 하나의 지시어가 선택·사용되었다.
25 ③은 텔레비전 매체의 특성에 해당한다.
26 방송 매체 속의 사회와 실제 현실과의 관련성을 생각하며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다.
27 음성 언어는 주로 청각에 의존하고, 문자 언어는 주로 시각에 의존한다.
28 통신상에서는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 문법적인 오류가 나타나는 글이 많다.
29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매체는 인터넷 매체이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방송 매체에 속한다.
30 속담은 관용어에 비해 풍자성과 교훈성이 강하다.

오답풀이

- ① 속담도 비유적인 표현이 많다.
② 관용어는 두세 낱말이 결합된 형태이며, 속담이 주로 문장의 형태이다.
③ 속담이 관용어에 비해 문장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표현이 길고 직설적인 것은 아니다.
⑤ 관용어도 둘 이상의 낱말로 이루어진다.

- 1 ④ 2 ② 3 ⑤ 4 ① 5 ① 6 ④
7 ② 8 외모 불미(不美)하므로 9 ② 10 ①
11 친구의 관심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서 12 ④ 13 ⑤ 14 말놀이
15 ② 16 ⑤ 17 ③ 18 ⑤
19 ④ 20 ② 21 ㉠ 쓴 게 비지떡 ㉡ 빛 좋은 개살구 ㉢ 뚝배기보다 장 맛 ㉣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22 ④ 23 ① 24 ⑤ 25 •그런 :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쉴 수 없어 목숨을 잃게 된 •그 : 부상을 당해 움직일 수 없는 친구 26 ③ 27 ③, ⑤, ⑦, ⑨ 28 ⑤ 29 ② 30 통신 언어

- 1 시가 쓰여진 시기가 분위기와 연관이 있는 시들도 있지만 모든 시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 2 이 노래는 [가]의 시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 새로운 부분을 첨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와 마찬가지로 운율을 느낄 수 있고, 일상어가 아닌 시어를 사용했다.
- 3 [나] 시의 주제는 '따뜻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다.
- 4 특별한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이므로 사상 전개에 필수적 요소는 아니다.
- 5 박 소저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다.
- 6 부인은 박 소저의 외모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공은 박 소저의德行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7 고전 소설의 전기적(傳奇的)인 요소이다.
- 8 박 소저는 못생긴 얼굴 때문에 남편 이시백과 갈등한다.
- 9 처음 만난 친구와는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는 화제로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 10 수희는 민수에게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공감과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
- 11 상대방의 관심사를 고려하지 않은 대화는 올바른 대화라고 할 수 없다.
- 12 오랜만에 통화하는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고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살을 빼라는 말은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 13 적절한 재담은 첫 만남의 어색함을 풀어줄 수 있다.
- 14 빵의 이름을 물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
- 15 정중하고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의 재담은 가벼워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 16 건의문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진지하게 쓰는 것이 좋다.
- 17 건의하는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이 많아서 글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다.
- 18 많은 사람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문제의 사안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따져서 중요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 19 관용 표현은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서 쓰이기 때문에 꾸밈을 받지 않고 문장의 형식도 바꿀 수 없다.
- 20 ②는 '관계를 끊다.'의 의미이다.
- 21 엄마와 딸의 대화와 상황을 보고 적절한 관용 표현을 넣는다.
- 22 ④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이루지 못한 경우에 쓰는 속담이다.
- 23 지시어를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시어는 불필요한 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 24 텔레비전은 기본적으로 음성 언어를 사용하지만 요즘은 자막을 통해 문자 언어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텔레비전은 라디오와 달리 영상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Plus α! 영상 매체(텔레비전)의 특성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영상 기능을 수반한다. 동시에 문자 언어도 사용된다.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 전달에 효과를 높인다. 사용하는 언어는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 25 '그런'은 앞에서 언급한 상황을 지시하는 말이고, '그'는 그런 상황에 처한 친구 고래를 가리키는 말이다.
- 26 ㉠은 '저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시어 '저'는 듣는이와 말하는이 모두에게서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 27 ①, ②, ④, ⑥, ⑧은 음성 언어의 특징이다.
- 28 ⑤는 연어 보호 운동을 펼쳐 보자는 글이 실린 낚시 전문 잡지를 가리킨다.
- 29 ②는 문자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 경우이다.
- 30 제시된 설명은 컴퓨터와 휴대 전화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언어인 통신 언어에 대한 설명이다. 최근에는 통신 언어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16 강 실전 모의 평가 2 회

p.091~096

- 1 ④ 2 ③ 3 ① 4 ② 5 ② 6 색안경
7 ⑤ 8 ④ 9 ⑤ 10 ⑤ 11 ② 12
토론 주제와 관계가 먼 내용을 이야기했다. 13 ⑤
14 ④ 15 ③ 16 ① 17 ② 18 •관용
표현 : 눈을 붙이다. •의미 : 주무신다(잠을 자다).
19 ② 20 ④ 21 이리, 저기 22 •그거 :
미술 대회에서 1등 한 것 •그랬다고 : 그림을 보고 싶었
는데 못 봐서 아쉽다고 23 ① 24 ③ 25
③ 26 ④ 27 ⑤ 28 ① 29 ②
30 진실로 아름다운 사람

- 1 이 글은 수필이다. 수필에도 인물 간의 갈등이 등장하
지만 그보다는 글쓴이의 정서와 심리에 주목하여 감상
하는 것이 좋다.
- 2 글쓴이는 젊고 연륜이 있었던 아버지의 중년을 기억하
고 있다.
- 3 ①은 발음이 비슷하거나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이용한 말장난에 해당한다. ①은 재담의
종류 중 패러디에 의한 재담이다.
- 4 글쓴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아버지와 의
논하고 있다.
- 5 ②는 여민의 효성스러운 마음과 상관이 없는 행동이다.
- 6 여민은 백태가 낀 어머니의 눈을 가려드리기 위해 색안
경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
- 7 주인은 장애인에게 물건을 처음으로 팔면 장사가 잘 안
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 8 여민이가 어머니를 위해 돈을 모은 것을 기특하게 생각
해 원가에 안경을 팔려고 한다.
- 9 여민이가 안경점을 나오는 장면은 여민의 모습만 담는
것이 좋다.
- 10 무조건 상대방 의견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올
바른 근거를 들어 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 11 인터넷 토론은 얼굴을 맞대고 하는 토론에 비해 적극적
이고 솔직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것이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면 나쁜 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 12 이 글의 주제는 '청소년들의 팬클럽 활동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느냐.'이다.
- 13 '새벽이슬'이 비교한 내용은 주제와 잘 어울리지 않
는다.

- 14 격려나 위로의 글을 쓸 때는 진지하고 진실한 태도로
쓰는 것이 좋다.
- 15 도움이 필요하면 돕겠다는 건 수빈이가 보은이에게 한
말이다.
- 16 ①은 보은이의 현재 상황을 비유한 표현이다.
- 17 ②는 격려나 위로의 말이 될 수 없다.
- 18 '눈을 붙이다.'는 '(잠을) 자다.'의 의미이다.
- 19 ②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라는 의미
이다.
- 20 큰 개를 보고 놀라서 장난감 개를 보고도 놀라는 상황
이므로 ④가 가장 어울린다.
- 21 말하는이와 가까이 있을 때는 '이', 듣는이와 가까이
있을 때는 '그', 둘 모두에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저'를 사용한다.
- 22 '그거'는 여민이가 1등을 한 사실을 가리키고, '그랬다
고'는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킨다.
- 23 듣는이와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종류의 지시어를 사용
한다.
- 24 텔레비전은 음성 언어를 주로 사용한다.
- 25 제시된 매체는 라디오이다. 라디오의 주된 언어는 음성
이고, 라디오는 음성 언어의 단점을 보완했다.
- 26 ④는 인쇄 매체 언어의 특징이다.
- 27 이 글은 전기문이다. 전기문에도 문학적 상상력이 포함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은 '평전'인데, 평전은 글쓴이
의 평가가 포함된 전기문을 말한다.
- 28 많이 아프지만 돈이 없어 병원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장기려 박사를 많이 찾아왔다.
- 29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므로 잊속이 밝다고 할 수 없다.
- 30 이 글의 제일 마지막 단락은 장기려 박사에 대한 글쓴
이의 평가이다.

- 1 ① 2 ④ 3 하늘(실비단 하늘) 4 ②, ④
 5 ① 6 그렇잖아도, 굶실거린다 7 ⑤ 8 ⑤
 9 바보 10 ③ 11 ④ 12 언어의 신비 13
 ① 14 ③ 15 호출장 16 ② 17 ④
 18 그리고, 해라 19 ⑤ 20 원술랑과 지소 부인
 의 외적 갈등, 돌아가신 아버지를 뵈고 싶어 하는 원술과
 이를 허락하지 않는 지소 부인의 갈등이다. 21 ①
 22 빗소리 23 ⑤ 24 ② 25 ⑤

- 이 시는 향토적인 소재를 사용하였다. 세련된 분위기는 거리가 멀다.
-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화자가 우러러보고 싶은 소재는 하늘(실비단 하늘)이다.
- ①에는 의인법과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②는 의인법, ④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이 글은 소설이다. ①은 희곡이나 시나리오의 특징에 해당한다.
- 점순네와 우리 집은 마을과 소작농의 관계이다.
- 길동은 서자이기 때문에 ‘호부호형’ 할 수 없는 것에 갈등하고 있다.
- 용왕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아무 잘못도 없는 토끼를 잡아와 죽이려고 한다.
- ‘바보’는 소녀가 소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소년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길동은 서자 출신으로 문과에 응시하여 벼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법(兵法)을 익히는 것이다. 병법을 익혀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라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수필은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한 자기 고백적인 글이다.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깨닫거나 생각한 것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며 읽는다.
- [가]는 글쓴이가 언어에 대해 깨닫게 되는 과정을 쓴 글이다.
- ‘달밤’이라는 분위기에 맞는 소박한 인심이다.
- 깨끗 장수 아저씨의 ‘괜찮아’에는 사랑, 선의, 용서, 너그러움이 담겨 있다.
- 강제 수용소에 대한 인물들의 두려움이 나타난다.

Plus α! ‘안네의 일기’에 드러난 시대적 배경

- 나치가 유대인들을 못살게 괴롭힘
- 나치가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었음
-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 숨어 살았음
- 많은 사람들이 나치 몰래 유대인들을 도와주었음
- 유대인들은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음

- 희곡과 시나리오에는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 세인의 아버지가 수철의 아버지의 상사라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게 되자 당황하고 있다.
- 텔에게 아들 머리 위의 사과를 맞히려는 게슬러의 명령은 극적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19 **오답풀이**

- 은 장면 번호
- 는 화면이 밝아짐
- 은 화면 겹치기
- 는 화면 확대

- 원술의 아버지는 화랑의 뜻을 어긴 원술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가셨다.

- ①과 같은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 시적 화자는 빗소리를 듣고 훌쩍거리게 된다. 화자의 어둡고 무서운 마음을 심화시키는 소재이다.

Plus α! 시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소재

찬밥, 금간 창, 빗소리, 윗목



슬슬하고 외로우며, 슬프고 허전한 분위기를 조성함

- 시적 화자는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창을 내려고 한다.

- ‘호부호형’을 하지 못한 것은 적자가 아니라 서자였다.

- ‘괜찮아’는 용기를 주는 말이며, 희망, 격려, 나눔, 부축의 말이다.



02회 비문학(수업, 소개, 면담, 광고, 설명문, 보고서 쓰기·회고록) p.103~107

- 1 ③ 2 ④ 3 ④ 4 ② 5 ⑤ 6 할머니의
현신적인 사랑 7 ① 8 ⑤ 9 ② 10 ②
11 광고에 나타난 내용이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신뢰성
과 타당성을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12 ②
13 ④ 14 금줄은, 말한다 15 ② 16 ④
17 ③ 18 ① 19 ④ 20 ⑤ 21 남도의 음
식 축제 22 ④ 23 ③ 24 꽃다발 25 ⑤

- 1 보조 자료는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므로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좋다.
- 2 ④는 요약의 역할을 하는 담화 표지어이다.
- 3 학생들의 학습을 목적으로 하므로 학생들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진행된다.
- 4 소개하기를 할 때에는 좋은 점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소개하는 것이 좋다.
- 5 소개하기는 듣는이가 잘 모르는 대상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느낌 위주로 쓰게 되면 듣는이가 공감하기 힘들다.
- 6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재산을 기부하는 등 할머니의 현신적인 사랑 때문에 ‘날개 없는 천사’라고 부른다.
- 7 ①은 정보 수집이 목적인 면담이다.
- 8 면담 대상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다. 대답이 길어지더라도 기다려야 한다.
- 9 ②는 면담이 끝난 후에 할 활동이다.
- 10 광고의 설득 전략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 11 광고를 읽을 때에는 광고의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과장이나 왜곡은 없는지 살피고 허위 광고가 아닌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12 아빠의 위험한 운전 습관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느라 팔뚝이 굼어진 아이를 강조해 안전 운전을 하자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13 제시된 글은 설명문이다. 설명문에는 하나의 글에 하나의 주제를 담아야 한다.
- 14 ㉠은 대상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는 ‘정의’의 방법이다.
- 15 [라]는 청각 피드백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므로 ‘예시’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16 짚신은 벚짚으로 만들어서 보온성도 뛰어나다.

- 17 [라]는 소리가 늦게 들리면 말소리가 이상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8 앞뒤 문맥을 확인해 보면 ㉠에는 앞 부분에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역접의 접속어가 어울리고 ㉡은 원인과 결과를 이어 주는 접속어가 어울리므로 ㉠이 가장 적절하다.
- 19 보고서의 자료를 해석할 때는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0 공동 작업일 경우 역할 분담을 해서 함께 조사하고 맡은 역할을 보고서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 21 남도로 탐구 학습 여행을 떠난 우리 모듬이 주제로 잡은 것은 남도 음식 축제이다.
- 22 수기도 수필의 일종이므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
- 23 두 사람이 모두 맹인이지만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사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서 가슴이 먹먹하다.
- 24 [가]의 마지막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5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사람은 자신이 가난하더라도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삶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 1 ⑤ 2 ① 3 ③ 4 ② 5 4개 6 ④
7 ⑤ 8 (1) 다섯, 피아노, 우리, 도화지, 나무 (2) 향기롭다, 기쁘다 (3) 천천히, 반짝반짝 9 ④ 10 ⑤
11 •자네 : 둘째 아들 •여기 : 부잣집 문 앞 •나 : 도깨비 •여기 : 손 12 ③ 13 ④ 14 물렸다
15 '붙잡다'는 경찰이 납치범을 붙잡은 행위를 강조하는 능동문이고, '붙잡히다'는 납치범이 경찰에게 붙잡힌 행위를 강조하는 피동문이다. 16 ⑤ 17 ① 18 (1) 부모님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2)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나에게 업혔다. 19 헐렸다, 피동 표현 20 ① 21 •사동 : (1), (3), (4), (5) •피동 : (2), (6) 22 ⑤ 23 ② 24 ④ 25 ① 26 엄마는 '키웠는데'라는 사동 표현을 사용하여 민철이가 스스로 큰 것이 아니라 엄마가 키우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강조하고, 민철이는 '켰다'는 주동 표현을 사용하여 스스로 한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27 ③ 28 •사동 표현 : 찌푸리게 합니다. •사동 표현의 의미 : 버려진 쓰레기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의미이다. 29 ④ 30 (1) 선생님이 나를 웃겼다. (2)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인다. (3) 우리 반 친구들이 이번에는 나에게 홍길동 역할을 맡겼다.

- 1 ⑤는 감탄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조사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다.
2 형태가 변하고 서술어로 쓰이는 것은 용언이다. 그중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동사이다.
3 용언을 제외한 나머지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서술격 조사 '-이다'는 예외적으로 활용을 한다.
4 밑줄 친 단어는 '일'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②는 '아름답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5 위 문장에 사용된 조사는 '-과, -는, -에, -를' 4개이다.
6 수사와 수 관형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④의 '한'은 사람을 수식하는 수 관형사이고 나머지는 수사이다. 수사와 수 관형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조사가 올 수 있으면 수사(예 아이들 열이 모였다), 뒤에 단위성 의존 명사(개, 번, 벌, 명 등)가 오면 수 관형사(예 열 명이 모였다)이다.
7 ⑤는 '민수, 할머니, 짐' 3개, 나머지는 2개가 사용되었다.

- 8 '먹다', '나오다', '짓다'는 동사, '먼, 어떤, 온갖, 현'은 관형사이다.
9 '명사 + 조사 + 부사 + 명사 + 조사 + 동사'의 순서이다.
10 '동수야'는 명사에 호격 조사가 붙은 것이다.
11 '그 집으로'의 '그'는 대명사가 아니고 '집'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12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는 사용되지 않았고,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 '안'이 사용되었다.
13 ④는 '엄마가 아이를 침대에 눕게 한다.'는 의미의 사동문이다.
14 '물다'에 접사 '-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15 능동문은 주어를 강조하는 성격이 강하고, 피동문은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16 피동문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17 ①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 피동이 사용된 잘못된 문장이다.
18 (1)은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고, (2)는 접사 '-히'에 의한 표현이다.
19 '-리'에 의한 피동 표현이다.
20 ①은 이중 피동으로 잘못된 문장이다.
21 사동과 피동을 구분할 때 꼭 사동 접사 '이/히/리/기/우/구/추'를 사용했는지, 피동 접사 '이/히/리/기'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문장을 잘 살펴서 주어(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행위를 시키는가, 아니면 주어(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행위를 당하고 있는가를 따져서 사동문이나 피동문이나를 구분하는 것이 쉽고 정확하다. 또한 사동사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에서 목적어(-을/를)를 가진다는 점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면 쉽다.
22 나를 울게 한 원인이 내가 이별을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23 ②의 경우 '-게 하다' 사동으로 고치게 되면 의미가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꿘다'를 '깨웠다'로 고치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24 ④는 남에 의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의미이므로 피동 표현이다.
25 ①은 맞는 표현이다.
26 주동 표현은 주어가 스스로 한 것임을 강조하는 성격이 강하고, 사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시킨 것임을 강조하는 성격이 강하다.

27 ‘먹는다’ 는 주동 표현이다. ③은 사동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Plus α!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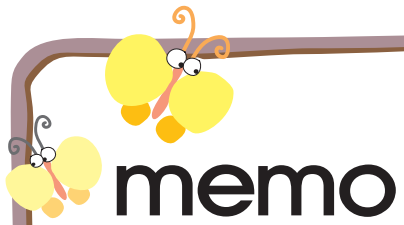
주동(主動)	사동(使動)
행동하는 주체(주어)가 스스로 하는 동작	주체(주어)가 다른 주체에 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 고기가 익는다. • 아기가 웃었다.	• (아버지가) 고기를 익혔다. • (민주가) 아기를 웃겼다.

28 사동 표현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대상에게 초점을 두고, 시키는 행위를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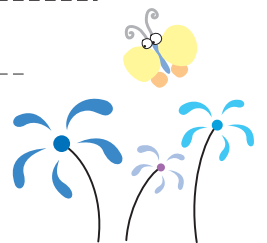
29 ④는 피동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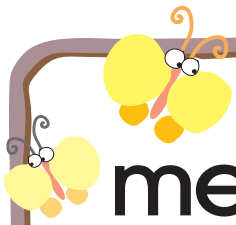
30 (1)은 사동 접사 ‘-기’, (2)는 ‘-이’, (3)은 ‘-기’ 를 사용하여 사동 표현으로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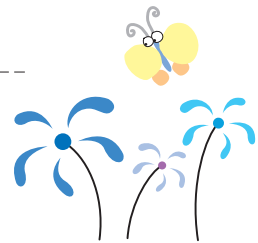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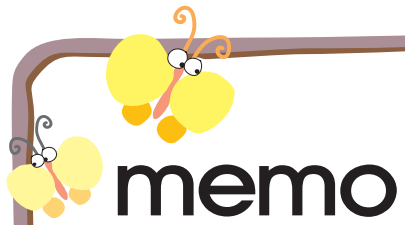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